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자녀, 부모의 이혼, 가정학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매년 8천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3), 전국 238개 시설에서 15,787명의 아동청소년이 양육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유아기에 가족과 헤어지고, 친척집이나 여러 보호기관을 옮겨 다니며 주거지의 빈번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주거지의 이동은 주양육자의 변경과 동반되므로 일관된 양육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형제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의 단절 등 생활의 조직적인 체계가 붕괴되어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Unrau, Seitab, & Putney, 2008). 친부모와 분리되는 경험 자체가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낯선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새로운 양육자와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양육장소 변경은 아동에게 반복적인 상실과 거절의 경험이 되며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위탁양육가정에서 양육장소의 빈번한 이동을 경험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 정서 및 행동양상에 있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 Unrau와 동료들(2008)의 연구 결과, 양육장소 변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던 사람은 자신의 탓으로 인해 양육장소가 변경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포기하는 양육자와 세상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끼며, 비행과 폭력 등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문제, 행동문제와 정서문제 등이 빈번한 양육장소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지만

(Pardeck, 1984; Palmer, S.E., 1996), 위탁양육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위탁 초기에 행동문제를 측정하고, 양육장소변경이 빈번히 발생한 이후에 추가로 행동문제를 측정하여 비교해 본 Newton, Litrownik과 Landsverk의(2000)의 연구에 따르면, 위탁 초기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양육장소변경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나, 초기의 외현화 문제가 정상범위였던 아동들도 양육장소변경이 여러 번 발생한 이후에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가 모두 상승하여, 양육장소변경의 경험이 해당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탁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초기 행동문제와 18개월 이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여 비교한 Rubin, O'Reilly, Luan과 Localio(2007)의 연구에서도 입소 초기의 행동문제, 연령, 인종, 성별, 일반적 의학적 상태, 친부모의 정신병리, 친부모의 약물 및 알코올 문제, 수감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양육장소 변경 경험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빈번한 양육장소변경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복잡한 외상성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방해하고,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영향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ok et al., 2005; Leathers, 2002; Newton et al., 2000; Unrau, 2007; Unrau et al., 2008),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양육장소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Coddington(1972)의 Life events list 중에서 부모의 사망, 이혼, 수감, 질병,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경험의 유무, 형제와의 이별 경험 유무 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일부 발췌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들의 총합을 분석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정선옥, 2002). 이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총점이 커질수록 시설 입소 이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개별 항목의 고유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함께 보고하고 있다. 기존 국내 연구의 설문 방식은 양육장소변경의 유무만을 파악하였으므로, 양육장소변경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지는 못하였고,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하나로 양육장소변경을 포함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양육장소변경이 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시설양육 청소년들도 양육장소변경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적응의 양상을 나타내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Unrau(2007)는 양육장소변경을 ‘다양한 생활 체계의 변경’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장소변경에 대한 Unrau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 하여 ‘주거지의 이동과 주양육자의 변경을 포함하는 생활 체계의 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양육장소변경 경험이 시설양육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빈번한 양육장소변경이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양육장소변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주는 심리적 요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시설양

육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악한 발달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긍정성이 바탕이 되며, 원하는 바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 주변 사람과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감과 소통 능력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김주환, 2011; 이해리, 2007; Block & Kremen, 1996; Masten & Coatsworth, 1998). 이와 같이 역경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 내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을 개념화하여 탄력성이라고 한다.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Garmezy, Rutter, Werner 등의 연구자가 1960년대부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와 비행 등의 행동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위험조건이 많은 역경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적응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Masten, Monn, & Supkoff, 2011). 이들은 탄력성을 발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간의 성장에 따라 기대되는 발달과업이 변화하듯이 발달과정에 따라 긍정적 적응의 기준과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Masten et al., 2011). 탄력성은 개인의 고정된 성격특성이 아니라 심각한 역경이나 외상성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과정 자체라고 설명하면서(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요인을 연구해왔다.

반면, Block은 탄력성을 정신분석학적인 관

점에서 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충동을 조절하여 개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자아(ego)의 기능이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파악하고 자아(ego)라는 접두사를 더해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으로 명명하여, 자아통제의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적인(ego-resilient) 사람과 자아연약한(ego-brittle) 사람으로 구분하였다(장휘숙, 2001; Block & Kremen, 1996).

탄력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발달적 과정 또는 성격적 특징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나, 역경상황에의 노출과 긍정적인 적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김주환, 2011; 이해리, 조한익, 2006; Luthar et al., 2000; Masten & Coatsworth, 1998). 탄력성은 역경상황과 성공적인 적응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높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의 표본에서 적응적인 발달결과를 측정하여 검증될 수 있다(장휘숙, 2001). 시설양육 청소년에 대한 이경희(2008)의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을 적게 나타낼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우수한 적응을 나타내었고, 현은민과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도 자아 탄력성이 높은 시설양육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을 낮게 보고하였으며, 사회적 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시설양육아동과 일반 가정아동의 지능 및 정서·행동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시설양육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지능지수가 낮았고, 전반적인 정서와 행동문제가 높았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은 시설양육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정서와 행동문제를 더 낮게 보고하여(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2007), 탄력성이 심리적 완충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개념을 참고하여 ‘자신의 역경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보유자원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부정적인 역경상황을 긍정적인 적응상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으로 탄력성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양육 청소년의 양육장소 변경 경험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양육장소 변경 경험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지닌 심리적 완충자원인 탄력성에 의해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여 역경조건에서도 바람직한 적응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세 곳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전체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진행되었다.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이름과 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는 설문지를 받아 개별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전후의 안내 사항과 결과 보고서 제공을 포함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전 과정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윤리 심의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표 1. 연령, 입소연령, 입소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전체	남	여		
연령	14.3세(1.59)	14.1세(1.68)	14.4세(1.47)	-1.26	.21
입소연령	4.8세(4.64)	4.5세(4.42)	5.1세(4.88)	-.72	.47
입소기간	9.9년(3.85)	10.1년(3.75)	9.6년(3.97)	.73	.47

전체 168명의 중·고등학생 중에서 불성실 응답자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 등 6명을 제외하고, 총 162명이 응답한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양육시설에서는 1일 2교대의 형태로 두 명의 양육교사가 열 명 내외의 청소년과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양육교사가 부모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양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설문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양육교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며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일주일 후 수거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은 남자 84명(51.9%), 여자 78명(48.1%)이며,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기술하였다.

측정도구

**양육장소변경**

양육장소변경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양육시설에 오기 전에 친척집이나 다른 양육시설로 양육장소를 옮긴 횟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미혼모 자녀로 태어난 후 곧바로 시설에서 양육된 경우 양육장소의 변경횟수는 ‘없

표 2. 양육장소변경의 빈도

양육장소변경 횟수	빈도	%	누적 %
없음	56	34.6	34.6
1회 변경	43	26.5	61.1
2회 변경	35	21.6	82.7
3회 변경	20	12.3	95.1
4회 변경	8	4.9	100.0
합계	162	100.0	

음’으로 표시하고, 양육장소변경 횟수가 1번 있는 경우 ‘1회’, 2번 있는 경우 ‘2회’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162명의 양육장소변경 횟수는 최소 ‘0회’에서 최대 ‘4회’였으며, 평균 양육장소변경 횟수는 1.27회로 나타났다(SD=1.20). 양육장소변경의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해리, 조한익(2005, 2006)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탄력성의 특성을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탄력성의 특성을 개인 내부의 심리적 요인으

로 간주하여(김주환, 2011; 김지연, 오경자, 2011; Block, Block, & Keyes, 1998; Block & Kremen, 1996), 개인 내적 특성요인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 능력’,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낙관주의’, ‘목표와 희망’,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의 8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방식은 리커트 6점 척도로서 1점(전혀 아니다), 2점(대체로 아니다), 3점(별로 아니다), 4점(조금 그렇다), 5점(대체로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이다. 이해리, 조한익(2006)이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

양육자가 인지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이후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고,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10)가 개정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BCL 6-18)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CBCL 6-18)은 주양육자가 자녀의 적응상태 및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총 1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방식은 3점 리커트 척도로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설양육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증후군 척도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의 신뢰

도(Cronbach's  $\alpha$ )는 기타문제(.58)를 제외하면 .62~.95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6~.80이었다(오경자, 김영아, 201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89, 외현화 문제행동은 .93이었다.

####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Report: YSR)**

청소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7)이 개발한 이후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고,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10)가 개정한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을 사용하였다. 총 119문항이며 3점 리커트 응답방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항목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SR)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기타문제(.53)를 제외하면 .59~.93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2~.91이었다(오경자, 김영아, 201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88이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 응답 자료들의 통계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특징과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양육장소변경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연구에 참여한 시설양육 청소년 162명의 양육장소변경, 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변인 별 남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YSR 내재화 문제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남 M = 8.04, SD = 6.76; 여 M = 11.01, SD = 8.29,  $p < .05$ ).

이는 시설에서 양육되는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더 높게 나타낸다고 보고한 최은경과 오수성(2006)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재화 문제를 높게 나타낸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과는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Achenbach & Rescola, 2007; 홍미란, 2010;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시설양육 청소년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양육장소변경은 YSR 및 CBCL의 내재화 문제, CBCL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r=.160, p<.05; r=.413, p<.01; r=.424, p<.01$ ), 탄력성 및 YSR 외현화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탄력성은 YSR 및 CBCL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보고되어( $r=-.220, p<.01; r=-.244, p<.01; r=-.239, p<.01; r=-.273, p<.01$ ), 청소년 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양육장소변경 경험과 문제행동의 관계: 탄력성의 조절효과

양육장소변경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N=162)	남 (n=84)	여 (n=78)	
양육장소변경	1.27(1.20)	1.19(1.12)	1.35(1.28)	-0.83
탄력성	101.49(17.09)	103.39(19.23)	99.45(14.29)	1.49
YSR내재화	9.47(7.66)	8.04(6.76)	11.01(8.29)	-2.51*
CBCL내재화	4.98(6.01)	4.43(4.44)	5.56(7.32)	-1.18
YSR외현화	10.84(7.52)	10.19(7.84)	11.54(7.14)	-1.14
CBCL외현화	7.96(8.95)	7.88(7.84)	8.05(10.06)	-0.12

주. \* $p < .05$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

	1	2	3	4	5	6
1. 양육장소변경	1					
2. 탄력성	-.115	1				
3. YSR내재화	.160*	-.220**	1			
4. CBCL내재화	.413**	-.244**	.279**	1		
5. YSR의현화	.145	-.239**	.554**	.112	1	
6. CBCL의현화	.424**	-.273**	.086	.484**	.361**	1

주. \* $p < .05$ , \*\* $p < .01$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연령과 입소연령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계적 회귀 분석시, 첫 번째 단계에서 연령과 입소연령을 통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양육장소변경, 탄력성을 투입하여 각 변인의 주효과를 확인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을 짝지어 곱한 값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및 상호

작용값은 모두 평균 중심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 자기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양육자 보고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탄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기보고(YSR)의 결과를 살펴보면, Model 2에서 탄력성의 주효과가

표 5.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Model 1 ( $\beta$ )		Model 2 ( $\beta$ )		Model 3 ( $\beta$ )	
	Y-내재화	C-내재화	Y-내재화	C-내재화	Y-내재화	C-내재화
연령	.121	.233**	.142	.255**	.140	.231**
입소연령	.039	.298**	-.143	.080 <sup>†</sup>	-.143	.082
양육장소변경			.192 <sup>†</sup>	.242*	.191 <sup>†</sup>	.244*
탄력성			-.213**	-.196**	-.219**	-.155*
양육장소변경 x 탄력성					.022	-.158*
Adj. $R^2$	.009	.206	.060	.262	.054	.281
$R^2$ Change	.021	.216**	.062**	.065**	.000	.023*
F Change	1.731	21.868**	5.298**	7.064**	.073	5.137*

주. Y-내재화: YSR 내재화 문제행동, C-내재화: CBCL 내재화 문제행동

주.  $\beta$  = 표준화 계수,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표 6.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Model 1 (β)		Model 2 (β)		Model 3 (β)	
	Y-외현화	C-외현화	Y-외현화	C-외현화	Y-외현화	C-외현화
연령	-.064	-.044	-.040	-.023	-.047	-.020
입소연령	.081	.470**	-.137	.282*	-.138	.282*
양육장소변경			.234*	.200 <sup>†</sup>	.233*	.200 <sup>†</sup>
탄력성			-.233**	-.212**	-.251**	-.205**
양육장소변경 x 탄력성					.069	-.024
Adj.R <sup>2</sup>	-.007	.191	.061	.245	.059	.241
R <sup>2</sup> Change	.005	.202**	.079**	.063**	.004	.001
F Change	.420	20.066**	6.751**	6.685**	.754	.118

주. Y-외현화: YSR 외현화 문제행동, C-외현화: CBCL 외현화 문제행동

주. β = 표준화 계수,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beta = -.213$ ,  $p < .01$ ), 양육장소변경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beta = .192$ ,  $p = .094$ ), 다음 단계에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자 보고인 CBCL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3에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beta = .244$ ,  $p < .05$ ;  $\beta = -.155$ ,  $p < .05$ ), 다음 단계에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158$ ,  $R^2 \text{ Change} = .023$ ,  $p < .05$ ). 즉, 양육장소변경 경험이 증가할수록 CBCL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탄력성이 완충자원으로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주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러

나, 양육장소변경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YSR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고( $\beta = .234$ ,  $p < .05$ ;  $\beta = -.233$ ,  $p < .01$ ), CBCL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탄력성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확인되었으며( $\beta = -.212$ ,  $p < .01$ ), 양육장소변경도 유의미한 효과에 근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beta = .200$ ,  $p = .052$ ).

지금까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육장소변경과 탄력성은 청소년 자기 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일관되게 시설양육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탄력성은 양육장소변경이 CBCL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장소변경과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즉, 양육장소변경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탄력성이 양육장소변경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양육장소변경 경험의 증가는 청소년 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일관되게 시설양육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Newton et al., 2000; Rubin et al., 2007; Unrau et al., 2008; Simsek, Erol, Oztop, & Munir, 2007). 양육장소변경은 주양육자와 주거지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일관된 양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방해하는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양육장소변경은 이미 친부모와 헤어지는 상처를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실과 거절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양육 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인 외상성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장소변경을 여러 번 경험한 시설양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예방을 위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탄력성은 양육장소변경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고와 양육자 보고에서 모두

시설양육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탄력성이 높은 것은 일관된 양상으로 시설양육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시설양육 청소년이 우울감을 적게 보고한다는 이경희(2008)의 연구와 자아탄력적인 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장경문(200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탄력성은 긍정성, 자기조절능력, 공감과 소통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김주환, 2011) 개인의 심리내적인 힘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이 높은 시설양육 청소년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여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가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감정과 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공격성, 규칙위반 등 외현화 문제 역시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탄력성은 바람직한 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양육장소변경이 CBCL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장소변경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완충자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탄력성이 역경상황에서도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한다고 보고한 Unrau와 동료들(2008)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탄력성은 양육자가 평가한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나타냈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한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

보고와 자녀 보고의 의견이 쉽게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보다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경우 의견의 차이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강현정, 국승희, 2010; 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으로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해 양육자가 지니는 선입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충동을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한 탄력적인 청소년은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성격형성과 적응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이영, 조연순, 1997),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완충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는 개인 내적 요인인 탄력성보다 또래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적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탄력성은 외현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주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조절효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의 외현화 문제는 내재화 문제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한신애, 문수백, 2011),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서로 강력히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의 보고와는 다른 맥락의 결과이다. 이란의 시설양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을 살펴 본 연구(Aguilar-Varaie, Roshani, Hassanabadi, Masoudian, & Afruz, 2011)에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의 존재, 비행을 모

니터링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비행에 반대하는 또래집단의 태도, 선생님이나 시설 양육자의 지지적인 태도와 친밀감 등이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시설양육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충해 주는 요소도 역할 모델의 유무,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비행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 등 대인관계적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완충해주는 요소로서 또래집단이나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성인과 같은 대인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되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절해 주는 요인에 있어 탄력성 뿐 아니라, 대인관계적 요소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양육자 보고 내재화 문제에서만 조절효과를 보였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력성은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양육장소변경의 부정적인 효과를 중재하는 조절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탄력성이 시설양육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자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시설양육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개입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는 시설양육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양육장소변경 경험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보고와 양육자 보고 모두에서 일관된 양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여 시설양육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양육장소변경이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양육시설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양육장소변경을 여러 번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예방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소 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과 같은 치료적 개입이 사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육장소변경의 경험이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양육자는 아동청소년이 해당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양육장소의 변경을 어떤 양상으로 경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양육장소변경이 빈번한 경우 향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적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 양육장소변경은 장소변경의 원인에 대한 자책감과 주양육자에 의한 거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Unrau et al., 2008), 양육장소변경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재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자존감 유지와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현선(2000)은 환경적으로 고위험 상황에 처한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정서적 결연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기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양육장소변경을 경험한 시설양육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재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번 연구는 양육장소변경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탄력성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양육장소변경을 경험한 시설양육 청소년의 심리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탄력성은 시설양육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검증되었다. 탄력성을 발달적 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Masten et al., 2011),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탄력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설양육 청소년이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기회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현재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 소개된 탄력성 증진프로그램으로는 앞서 언급한 박현선(2000)의 멘토링 프로그램, 교류분석 집단 프로그램(김주희, 2006),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김순복, 2007) 등이 있다. Seligman 교수팀의 펜실베이니아 예방 프로그램을 응용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김순복, 2007)은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의 원인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고,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인지방식을 연습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감정통제, 낙관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했다. 이는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

램이므로, 한정된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예방적 개입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시설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개입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영옥(2007)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양육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자존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뿐 아니라 원가족의 지지와 방문 빈도와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시설의 입소사유가 대부분 미혼모 자녀, 가족의 붕괴, 경제적 파탄임을 고려해 볼 때, 원가족의 지지와 빈번한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소개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양육장소변경을 빈번히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재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탄력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는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양육자 보고인 CBCL과 청소년 자기 보고인 YSR의 설문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차원적인 정보 수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청소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양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CBCL, YSR과 함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평가하는 TRE(한국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를 사용한다면 시설양육 청소년이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보이는 적응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양육 청소년

중에는 미혼모 자녀로서 출생과 동시에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이 56명으로 표본의 3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입소연령의 평균(4.8세, SD=4.64)이 최은경과 오수성(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입소연령(7.63세, SD=3.70)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양육장소변경 횟수에 대해 조사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부재하므로, 미국의 위탁양육 가정의 장소이동을 조사한 Proch와 Taber(1985)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외 보호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양육장소변경을 경험하며, 평균적으로 2회 이하의 이동을 하고 있고, Anctil, McCubbin, O'Brien과 Pecora(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 1.01회로, 본 연구의 양육장소변경 횟수(1.27회, SD=1.2)는 미국 위탁양육아동의 평균이동 횟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소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장소변경 횟수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Wulczyn, Kogan, and Harden, 2003), 향후 연구에서 양육시설을 추가하여 입소연령 평균이 국내 선행연구의 입소연령 평균과 유사해지면, 양육장소변경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육장소변경이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시설양육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지능, 연령, 입소연령, 성별, 입소 당시의 일반적 의학적 상태, 친부모의 정신병리와 수감여부, 입소 원인, 친족과 연락하는 빈도와 질, 사회적 지지자원의 정도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선옥, 2002; Masten and Coatsowrth, 1998; Rubin et al., 2007). 그러나, 시설양육 청소년들의 입소 당시 자료

를 조희해 본 결과, 시설마다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고, 앞서 언급한 요소의 상당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해서 t-검정을 실시하고, 입소 연령과 현재 연령을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양육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입소 시점에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많이 통제한 후 분석한다면, 양육장소변경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에 대해 본 연구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비행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 미래청소년 학회지, 5(1), 163-182.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 (2012). 가정외 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강현정, 국승희 (2010) 내재화 장애 청소년과 외현화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보고와 청소년 보고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907-925.
- 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2007).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및 정서, 행동특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428-429.
- 김순복 (2007). 낙관성 형성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주희 (2006). 교류분석 집단 프로그램이 시설보호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남영옥 (2007). 생활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4(6), 313-336.
- 박현선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한국 사회복지학회, 41, 147-172.
- 보건복지부 (2011). 아동 복지 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13). 요보호 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 오경자, 김영아 (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주) 휴노.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6-18. 서울: (주) 휴노.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YSR. 서울: (주) 휴노.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4(1), 53-71
- 이경희 (2008). 시설보호 청소년의 탄력성이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조연순 (1993). 아동의 세계: 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서울: 양서원.

- 이해리 (2007). 역경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상담연구*, 15(1), 51-66.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 청소년 연구*, 16(2), 161-206.
- 이해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0(4), 143-161.
- 장휘숙 (2001). 사회정서발달: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최은경, 오수성 (2006).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29-145.
-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 현은민, 박혜영 (2005).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23(1), 19-29.
- 홍미란 (2010). 부모 또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 Rescorla, L. R. (2007). *Multicultural understanding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assess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 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 Aguilar-Vafaie, M. E., Roshani, M., Hassanabadi, H., Masoudian, Z., & Afruz, G. A. (201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sidential fostercare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3(1), 1-15.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cil, T. M., McCubbin, L. D., O'Brien K., & Pecora, P. (2007). An evaluation of recovery factors for foster care alumni with physical or psychiatric impairment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outcome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9, 1021-1034.
- Block, J., Block, J. H., & Keyes, S. (1988). Longitudinally foretelling drug usage in adolescence: Early childhoo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Child Development*, 59(2), 336-35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ddington, R. D. (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Derosa, R.,

- Hubbard, R., Kagan, R., Liautaud, J., Mallah, K., Olafson, E., & Van der Kolk, B.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 Leathers, S. J. (2002). Foster children's behavioral disturbance and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4), 239-26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asten, A. S., Monn, A. R., & Supkoff, L., M. (2011).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 M. Southwick, D. Charney, M. J., Friedman(Ed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Challenges across the lifespan* (pp.103-11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ton, R. R., Litrownik, A. J., & Landsverk, J. A. (2000). Children and youth in foster care: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number of placements. *Child Abuse & Neglect*, 24(10), 1363-1374.
- Palmer, S. E. (1996). Placement stability and inclusive practice in foster care: An empiric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 589-601.
- Pardeck, J. T. (1984). Multiple placement of children in foster family care: An empirical analysis. *Social Work*, 29, 506-509.
- Proch, K., & Taber, M. (1985). Placement disruption: A review of research.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7(4), 309-320.
- Rubin, D. M., O'Reilly, L. R., Luan, X., & Localio, R. (2007). The Impact of placement stability on behavioral well-being for children in foster care. *Pediatrics*, 119(2), 336-344.
- Simsek, Z., Erol, N., Öztop, D., & Müñir, K.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reported by teachers among institutionally rear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urkish orphanages compared with community control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7), 883-899.
- Unrau, Y. A. (2007). Research on placement moves: Seeking the perspective of foster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 122-137.
- Unrau, Y. A., Seitab, J. R., & Putney, K. S. (2008). Former foster youth remember multiple placement moves: A journey of loss and hop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11), 1256-1266.
- Wulczyn, F., Kogan, J., & Harden, B. J. (2003). Placement Stability and Movement Trajectories. *Social Service Review*, 77, 212-236.

1차원고접수 : 2013. 02. 18.

수정원고접수 : 2013. 07. 15.

최종게재결정 : 2013. 08. 14.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ment change and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Ja Kyoung Min**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multiple placement changes and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Additionally, resilience was examined as a moderator between multiple placement chang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 total of 162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dolescents were asked how many times they experienced placement changes and completed the Korean Resilience Scale and Youth Self Report (YSR). Caretakers completed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 for ages 6-18 (CBCL 6-1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reased number of placement changes negatively affec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ssessed by both adolescents and caretakers. Resilience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multiple placement changes o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reported by the caretaker. The present findings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intervention plans for adolescents with experience of multiple placement chang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placement change, resilienc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